

중장년 소득 115만원 늘때 대출 604만원 ↑

신규 취업 141만9천명...평균 월급 246만원

주택 소유 43.8%...6억원 초과 34.9% 증가

지난해 기준 국내 만 40~64세 중·장년층은 한 해 소득 중앙값(통계 자료를 크기 순서로 줄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 115만원 늘어나는 동안 금융권 대출은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출 잔액 중앙값은 5804만원으로 전년(5200만원)에 비해 11.6% 증가했다.

◆신규 취업 141만9천명...평균 월급 246만원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2021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장년층 인구는 2018만2000명으로 전년(2008만6000명) 대비 9만6000명(0.5%) 증가했다. 이는 총인구(5173만8071명) 대비 40.3%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중·장년층 등록취업자 비중은 66.4%(1340만2000명)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지난해 미취업 상태에서 올해 신규로 일자리를 취득한 취업자는 전체의 7%(141만9000명)로 이 가운데 80.3%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 평균임금 수준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 상태에서 올해 미취업 상태로 변동된 인원은 전체의 6.4%(129만3000명)이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1.4%로 나타났다. 종전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1년 미만 비중이 53.8%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미만(44.1%)이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 평균 소득 3890만원...전년 대비 5.4% 증가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신고액)이 있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77.1%(155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3890만원으로 전년(3692만원) 대비 5.4% 증가했다. 소득의 중앙값도 2515만원으로 전년(2400만원) 대비 4.8% 올랐다.

'1000만~3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이 3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만원 미만'(26.0%) 순이다. '3000만~5000만원 미만'(17.3%), '5000만~7000만원 미만'(9.8%) 순을 차지했다.

◆주택 소유 중·장년층 43.8%...6억원 초과 주택 비중 34.9% 증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 인구는 884만400명으로 전체의 43.8%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43.1%) 대비

0.7%p 상승했다. 무주택자의 비중은 56.2%(113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46.4%)가 여자(41.2%)보다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60대 초반의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연령구간이 낮을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작았다.

1주택자는 36.3%(732만8000명)로 비중이 전년에 비해 0.9% 늘었지만, 2주택자 5.9%(120만명)와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1.6%(31만6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자산가액(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이 전체의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25.8%)이었다. 6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중·장년층은 12.6%로 전년(9.6%)보다 34.9% 증가했다. /뉴스

'안정' 택한 현대차, 신규임원 176명

카림 하비브·이영택·송민규·김홍수 부사장 승진
미래 모빌리티 전환 위한 GSO 수장에 김홍수 부사장



(왼쪽부터)카림 하비브, 이영택, 송민규, 김홍수 부사장.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176명을 신규 임원으로 발탁하는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소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20일 이 같은 올해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 인사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월 30일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제·연령·성별을 불문하고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총 224명을 승진시켰다. 신규 선임은 176명으로 3명 중 1명을 40대로 발탁해 미래 준비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 기조를 이어갔다.

또 전동화 및 SDV(Software Defined Vehicle·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과 연계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문에서 이번 전체 승진 인사의 70%에 해당하는 총 156명을 발탁했다.

올해 임원인사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03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한 바 있다. 그만큼 물갈이 폭이 컸지만 이번 신규 선임 인원은 176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어 올하는 다소 안정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인사는 세계 경기 둔화가

예측되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 속 혁신'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기아디자인센터장 카림 하비브 전무, 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 이영택 전무, 제네시스 COO(Chief Operating Officer) 송민규 전무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영택 부사장은 현대차 아세안권역장에, 송민규 부사장은 제네시스사업본부장에 임명됐다.

이영택 부사장은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공장 및 베트남 합작공장의 완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필리핀과 태국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아세안 시장 성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민규 부사장은 아중동권역본부장 등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판매 및 손익 성장 견인, 글로벌 브랜드 인지 강화에 기여했다. 향후 제네시스 라인업 전동화 전환 등 중장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설한 GSO(Global Strategy Office)를 이끌 수장으로 김홍수 부사장을 임명했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배달·테이크아웃 ↑

월평균 이용액 증가...11만5818원→12만4298원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포스트 코로나 정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 및 외식행태와 식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이용 비중은 104.9%로 전년 대비 무려 56.9%포인트(p)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101.3%를 기록했다.

이르던 새해부터 실내 마스크의 무가 해제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지만 소비 트렌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와 같이 음식점보다는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테이크아웃 월평균 이용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 올해 배달·테이크아웃 월평균 이용액은 12만4298원(배달 39%, 테이크아웃 61%)으로 지난해 11만5818원보다 8480원 늘었다.

반면 월평균 음식점 이용액은 10만2829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296원 줄어 6년 전인 2016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트렌드는 식품 구매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온라인을 주된 식품 구입 장소로 삼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로 구입한다고 답한 비중이 응답 가구의 56.3%를 기록했다.

주된 식품 구입 장소가 온라인 채널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약 4% 수준(가공식품 기준 약 7%)으로 10년 전 0.1%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이 전체의 20%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결과와도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간편성과 편리성을 지향하는 가구의 식품소비 트렌드가 꾸준히 이어져 온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연택트 소비행태가 가속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

여수광양항만공사, ESG 경영 실현

인권경영시스템 3년 연속 인증 갱신...인권경영 가치 실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인권준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경영인협회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의 인권경영 관리목표 및 방침, 실행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YGPA는 올해 ▲인권경영 이행 체계 개선 ▲인권준중문화 확산 ▲ESG 경영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의 다양한 인권경영활동을 이행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인권경영 체계성과 우수성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사장은 "인권경영시스템의 연속 인증 취득은 올바른 인권준중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YGPA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로 인권경영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ESG 경영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업계 출도산 위기 '확산'

건설업계가 출도산 위기에 휩싸였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미분양 급증에 레고랜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까지 겹치면서 출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이 부도가 난 데 이어 경남 창원 지역의 중견 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 역시 부도가 나고,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뒤 잠적하면서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출도산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다. 2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된 건설사 중 총 5곳이 부도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 2곳, 부산 3곳 등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충남 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이 부도가 난 데 이어 경남 창원 지역의 중견 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이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 도태한 총 22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동원건설산업은 창원 성산구 소재로 전국 도급순위 388위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다. 지난해 매출액은 500여억원 수준이다.

일부 지역 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쌓인 데다, 분양이 되더라도 임주를 포기하면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아파트 청약경쟁률 7.7대 1

당첨가점, 34점→21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과 당첨가점이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대 1로 지난해(19.8대 1)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 세종(49.6대 1)과 부산(37.2대 1), 인천(16.1대 1), 대전(12.3대 1) 순으로 높았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없었다.

일반분양에 나선 384개 단지 가운데 175곳(45.6%)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에서도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했다. 당첨자들의 가점 평균도 크게 낮아졌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가점 평균은 2021년 34점에 비해 13점 하락한 21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책값 4.2% 상승
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서점.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간 발행 주수는 6만4657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신간 평균 책값은 1만7116원으로 전년 대비 4.2% 올랐다. 사진은 20 /뉴스

생활고에 부업 뛰는 가장들 37만명... '역대 최고'

5년 만에 41.0% 급증...고령·청년층 부업자 증가세

올해 부업에 나서는 가장 수가 5년 만에 41%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공공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업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기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36만8000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7000명) 가운데 67.3%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수는 33.1%, 가구주 부업자 수는 41.0% 증가했다.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비율은 2017년 63.5%에서 2022년 67.3%로 늘었다.

다. 전경련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령층과 청년층의 부업 활동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1~3분기 평균 기준,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8000명에서 올해 10만7000명으로 37.2% 증가했다. 60대 부업자는 7만6000명에서 12만9000명으로 69.7% 늘었다. 같은 기간 40~50대 부업자는 21만6000명에서 21만9000명으로 1.4%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업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업자 비율은 지난 5년간 2만2000명이 늘어 62.9%로 증가했다. 이어 건설업은 40.0%(8000명 ↑), 도·소매업은 24.5%(1만3000명 ↑) 상승했다.

광주상의 '신기술 융복합 지원' 30억 매출 증대 성과

62명 고용창출·43개 기업 신사업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2022년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43개 기업에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의 성과를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올해 43개 기업에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진출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분야 30억원의 매출 증대, 62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했다.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품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판로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수익원의 공공조달 낙찰실적을 기록했다.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채화석 전무이사는 "올 한해도 지역기업들의 신기술 융복합과 신사업 도입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심층조사와

멘토링 세미나,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발굴돼 있으며 생산공정 및 제품이 고도화되고, 다수의 계약이 성사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유망기업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난 4년간 추진해왔다. /권현만 기자